

보도시점 2024. 4. 30.(화) 08:00 배포 2024. 4. 30.(화) 08:00

청와대 개방 2주년,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가치, 문화예술로 되새긴다

- 5월 1일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 개최
-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5월 7일 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 6월까지 주말 위주 봄철 문화예술 행사 가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 이하 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진 청와대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청와대가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 이번 개방 2주년 행사를 전시와 음악회, 다양한 분야 공연, 다원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서 청와대의 새로운 장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등 특별전 개최

먼저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의 서사가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학기술, 보훈, 국방,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끈다. 대형 족자에 그려진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는 한국화의 양식적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다.

체험형 콘텐츠는 국민 품으로 돌려진 청와대의 장소적 의미를 더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국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 ‘우리가 정상’, ▲가상(버추얼) 외교관 ‘청마루’와 재미있는 대결을 벌이는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 등을 즐길 수 있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면 백자의 무늬인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도 만나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진다. 가상(버추얼)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권민호 작가의 작품도 놓칠 수 없다.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Bluhaus),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는 추억의 속도로 전진한다’는 청와대재단 누리집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과 연계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에서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열린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키이우의 아동권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화정책정보부가 이번 전시를 제안함에 따라 협력해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를 개최해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 개최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준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케이-컬처’라는 주제로 5월 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1,6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400여 명과 외교사절,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700여 명을 특별히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대니 구, 에스지(SG)워너비, 헤이즈, 김민석(멜로망스), 스테이씨, 악단광칠, 라포엠, 타악그룹 타고 등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린음악회는 한국방송공사 1채널(KBS1)을 통해 5월 19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 동안 녹화방송된다.

6월까지 주말 위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줄이어

아울러 5월부터 6월까지 주말 위주로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과 5일 헬기장 등 야외공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식 가족음악회’, ‘청와대 키즈 콘서트’, ‘청와대 버블 열차’ 등을 진행하고 5월 18일과 19일, 청와대 헬기장, 녹지원, 홍보관 등지에서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열어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선보인다. 5월 25일에는 소정원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을 통해 재즈, 팝송, 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6월 29일에는 청와대 홍보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해 ‘케이-오페라’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 행사】

구분	추진 일정
1.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수)~7. 29.(월)
2.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수)~6. 3.(월)
3. <청와대 어린이날 축제>	5. 4.(토)~5.(일)
4. <어린이 예술교육 워크숍>	5. 4.(토)~5.(일)
5. <KBS 열린음악회>	5. 7.(화)
6.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토)~19.(일)
7.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토)
8.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토)~2.(일)
9.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목)
10.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토)

관람환경 개선 등 내외국인 편의 도모

문체부와 재단은 증가하고 있는 관람 수요에 맞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여민1관 2층 화장실을 정비해 개방한 데 이어 여민관(2·3관) 일부를 카페형 라운지, 도서관 등으로 개선('24년~'25년)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지난 4월 16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던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 재단은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가을에도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청와대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 포스터
- 2.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포스터
- 3.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케이비에스 열린 음악회> 포스터

따로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	책임자	과장	이승재 (02-3771-8631)
		담당자	서기관	박진석 (02-3771-8641)
<공동>	청와대재단	책임자	팀장	구자경 (02-3771-8690)
		담당자	사원	최현희 (02-3771-8693)





붙임3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KBS 열린 음악회〉 포스터

